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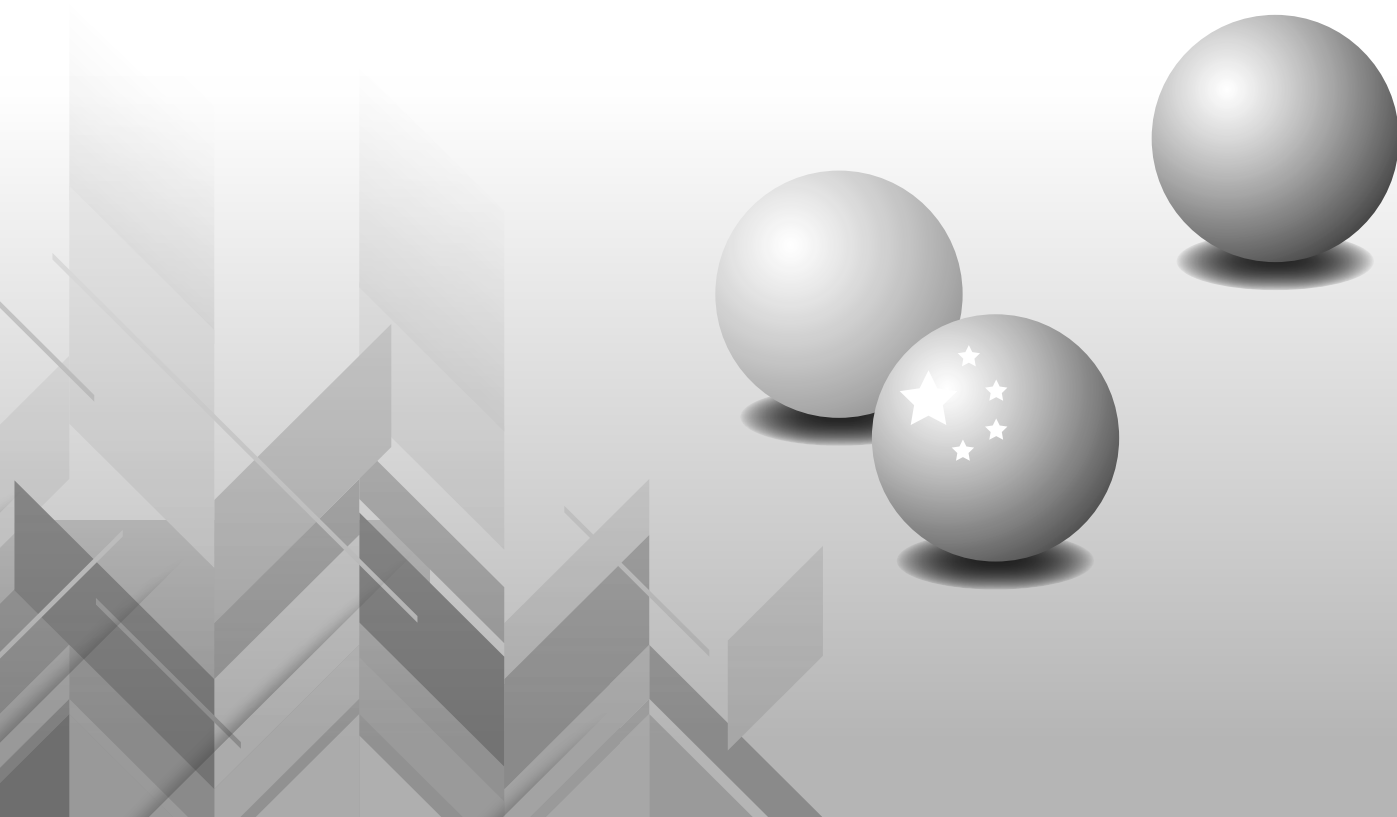
Contents

이슈와 진단	02
북중 농림축산물 무역 현황과 충남의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	17
중국 지방정부 국제포럼 동향	
충남 속의 중국	27
당나라 영랑공주가 창건한 당진 영랑사(影浪寺)	
충남의 대중국 교류 동향	33
2019년 하반기 충남 도·시군의 대중국 교류 동향	
발간목록	38



북중 농림축산물 무역 현황과 충남의 시사점

임채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북한산업실 부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이후 북한의 무역은 2015년까지 지속 성장하는 추세였다.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를 계기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와의 무역은 급감하였으나, 북중 간 무역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에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90%를 상회하게 되었고, 특히 농림축산물 교역은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식용유, 식량(밀가루, 쌀 등), 사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잣, 깨, 팥 등이다.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 정부는 농업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외 교류협력에 농업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본고는 북한의 무역 동향과 북한의 대외 교류협력 동향을 살펴보고, 충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북한의 무역 동향¹⁾

-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이후 2014년까지 북한의 무역액은 74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5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2012년 이후 수출액은 2015년까지 3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내외 수준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에는 19.5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수입은 2013년 43.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34.4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적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농림축산물 수입이 적자 폭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2012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5,800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여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1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였다. 북한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12년 7억 4천만 달러에서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16년에는 4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물의 수입 비중은 15~17%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1) 본고의 제1장(북한의 무역 동향)에서 활용한 자료는 UN COMTRADE이며, 제2장(북중 간 농림축산물 무역 현황)에서 활용한 자료는 중국 해관임. 양 기관의 무역 수치는 품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치 공표 시기, 데이터 수정 등에 기인함. 본고의 무역 실적은 통계청의 북한정보포털 수록 자료(KOTRA)와도 차이가 있으며, 이는 무역 데이터 발표 기관의 차이에서 기인함. 농림축산물 분류 기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AG 코드(농림축산물 품목별 코드) 분류를 참고하였음. 농림축산물의 범위는 농산물 42개 품목류, 임산물 24개 품목류, 축산물 25개 품목류 등 총 91개 품목류이며, 품목은 736개(HS-6단위 기준 1,10개 세번)으로 설정하였음. 상세한 데이터 정리 방법은 김영훈 외, 2018.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을 참조 바람.

표1. 북한의 무역 추이(2011~2017년)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무역	7,247.1	7,405.3	8,003.6	7,467.6	6,657.0	6,057.3	5,392.8	23.3%
	농림축산물	619.0	797.2	781.4	873.3	648.0	521.9	667.1
수출	3,433.9	3,162.8	3,632.2	3,415.7	3,131.3	2,913.8	1,953.4	70.3%
	농림축산물	61.1	57.7	78.8	176.0	118.1	103.8	118.6
수입	3,813.3	4,242.4	4,371.5	4,051.9	3,525.7	3,143.5	3,439.4	57.1%
	농림축산물	558.0	739.5	702.5	697.3	529.9	418.1	548.5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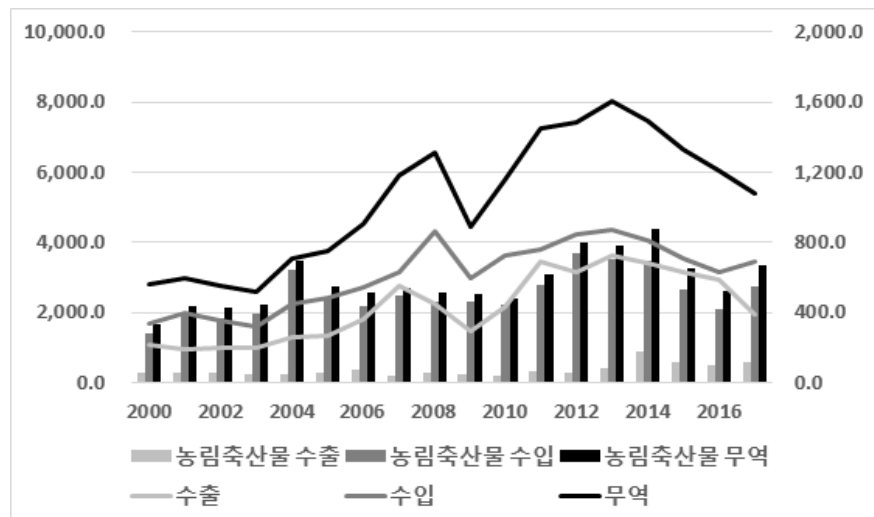


그림1. 북한의 무역 추이(2000~2017년)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2012년 이후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 기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92.3% 수준이다.

수출의 경우, 2012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는 17.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88.6%까지 상승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 파키스탄, 앙골라, 가나, 바레인 등 개발도상국이었다.

수입의 경우, 2012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35.3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83.3%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는 32.4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94.4%까지 상승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인도, 러시아였으며, 이외 주요 수입국은 매년 일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이며, 이외에 인도, 러시아도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다. 이외 국가의 국가별·수출입별 비중은 매년 상이하였다.

표2.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전체, 2011~2017)

단위: 백만 달러

분류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중국	2,475.5	2,502.5	2,927.5	2,867.9	2,567.7	2,537.3	1,731.0
	인도	10.4	0.1	76.2	108.6	99.0	87.4	35.4
	파키스탄	26.4	52.3	43.3	42.3	45.7	28.8	29.2
	네덜란드	97.6	8.9	130.0	2.1	0.4	0.2	0.0
	바레인	236.4	0.0	0.0	0.0	0.3	0.0	0.0
	총액	3,433.9	3,162.8	3,632.2	3,415.7	3,131.3	2,913.8	1,953.4
수입	중국	3,164.7	3,532.4	3,630.1	3,519.7	2,942.9	2,841.2	3,245.1
	인도	173.5	230.2	239.5	75.3	110.9	54.2	59.4
	러시아	99.2	58.4	103.4	82.2	78.3	68.1	75.3
	태국	24.1	40.3	99.8	107.3	73.8	46.8	1.7
	싱가포르	0.0	47.9	59.4	48.4	28.3	12.9	0.3
	총액	3,813.3	4,242.4	4,371.5	4,051.9	3,525.7	3,143.5	3,439.4

주: 주요 무역국 순위는 각 국가 2011~2017년도 수출·수입액의 합계 순으로 산정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정리

- 북한의 농림축산물 무역은 전체 무역과 유사하게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2012년 북한의 농림축산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였으나, 2017년에는 92.2%까지 상승하였다.

수출의 경우, 2012년 북한의 농림축산물 대중국 수출액은 4,610만 달러로 전체의 79.9%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1억 1,360만 달러를 수출하여 비중은 95.8%로 상승하였다. 중국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수출 대상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의 경우, 2012년 북한의 농림축산물 대중국 수입액은 5억 3,740만 달러로 전체의 72.7%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5억 달러 가량을 수입하여 비중은 91.4%까지 상승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전에는 태국, 인도, 온두라스 등이 주요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각국의 수입액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북한의 농림축산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표3. 북한의 농림축산물 주요 무역 상대국(2011~2017년)

단위: 백만 달러

분류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중국	52.1	46.1	68.0	167.0	109.3	98.5	113.6
	기타 아시아	2.1	1.7	1.5	1.4	1.4	0.0	0.7
	파키스탄	0.8	1.3	1.1	1.1	0.7	0.5	0.2
	베네수엘라	1.0	0.5	2.8	0.0	0.0	0.0	0.0
	사우디	0.1	2.2	0.1	0.3	0.2	0.0	0.2
	총액	61.1	57.7	78.8	176.0	118.1	103.8	118.6
수입	중국	393.8	537.4	493.8	513.2	413.5	341.0	501.3
	태국	12.1	18.7	82.2	47.7	34.1	19.2	0.7
	인도	54.6	65.2	22.1	16.1	12.6	10.9	7.8
	싱가포르	0.0	26.4	30.4	28.1	13.1	1.4	0.1
	러시아	27.1	9.1	12.1	18.8	9.4	4.5	6.9
	총액	558.0	739.5	702.5	697.3	529.9	418.1	548.5

주: 주요 무역국 순위는 각 국가 2011~2017년도 수출·수입액의 합계 순으로 산정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정리

- 대체적으로 2015년 이후 북한의 수출입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따른 경색과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시행에 기인한다. 무역 분야의 제재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역 분야에서는 농산물(HS 07류, 08류, 12류), 임산물(HS 44류)을 포함한 43개 품목류²⁾가 전부(또는 부분적으로) 금수 조치되었다. 2371호 결의안 채택 이전까지는 UN 회원국의 대북한 수입 금지 조치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375호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도 포함되었다.

농림축산물 무역의 경우, 4개 품목류에 한하여 UN 회원국의 대북한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의 농림축산물 수출 및 수입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한 제재 국면에 따른 교역 환경(운송, 송금 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품목류는 HS-03, 07, 08, 12, 16(일부), 25, 26(사실상 전부), 27(사실상 전부), 28(일부), 44,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71(부분), 72, 73, 74, 75, 76,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7(일부)류임. 일부는 소수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은 상당수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표4.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 제재 결의안의 수출입 금지 품목

결의안	대분류	품목	품목명	HS 코드	비고
2270호 (16.3.)	광물광석류	광물류	바나듐광	2615903000	수입
			티타늄광	2614	수입
		희토류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280530	수입
			희토류금속·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화합물	2846	수입
	귀금속류	금	(백)금광과 그 정광	261690	수입
			금	7108	수입
			금을 입힌 비금속	7109	수입
	유류, 에너지 자원류	항공유	항공기용 휘발유	2710122000	출입, 예외
			나프타형 제트 연료	2710124000	출입, 예외
			케로신형 제트 연료	2710192820	출입, 예외
			제트연료유	2710191010	출입, 예외
			제트연료유	2710192020	출입, 예외
2321호 (16.11.)	귀금속류	은	은광과 그 정광	2606100000	수입
			은	7106	수입
			은을 입힌 비금속	7107	수입
	기타	조형물	동상(Statue)	9703	수출
	철강 및 여타 금속류	동	구리광과 그 정광	2603	수입
		아연	아연광과 그 정광	2608	수입
		니켈	니켈광과 그 정광	2604	수입
		구리		74	수입
		니켈		75	수입
		아연		79	수입
2371호 (17.8)	광물광석류	납광석		2607	수입
		철광석		2601	수입, 예외
		석탄		2701	수입, 예외
		갈탄		2702	수입, 예외
	수산물류	수산물류		03	수입
		어류의 추출물		1603003000	수입
		어류의 즙		1603004000	수입
		기타 추출물과 즙		1603009000	수입
		조제 보존 처리 어류,캐비아,어란 등		1604	수입
		조제 보존 처리 갑각류·연체동물 등		1605	수입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철		7201	수입, 예외
		납	납과 그 제품	78	수입
2375호 (17.9)	유류, 에너지 자원류	천연가스 액체		2711	수출
		컨덴세이트		270910	수출
	의류, 섬유류	견,모,면 등 방직용 섬유 및 섬유제품		50-63	수입, 예외

2397호 (17.12.)	광물광석류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류		25	수출
	농림산물류	식용 채소, 뿌리, 괴경		07	수입
		식용 과실, 견과, 감귤, 멜론 껍질		08	수입
		채유용·각종 종자·과실, 짚·사료식물 등		12	수입
		목재류		44	수입
	기계 및 전자기 기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84	수출입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85	수출입
	운송수단	철도, 궤도용기관차, 신호설비		86	수출
		차량 및 그 부품		87	수출
		항공기 및 그 부품		88	수출
		선박과 수상구조물		89	수출
	유류, 에너지 자원류	정유제품	윤활유 기초유	2710	수출, 제한
			석유 젤리·파라핀왁스 등	2712	수출, 제한
			석유 코크스와 그 잔여물	2713	수출, 제한
		원유		2709	수출, 제한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철강		72	수출
		철강제품		73	수출
		동		74	수출
		니켈		75	수출
		알루미늄		76	수출
		납		78	수출
		아연		79	수출
		주석		80	수출
		기타 비금속제품 등		81~83	수출

주1: 제재 대상 품목이 HS 코드 4단위 이하로 구체적일 경우 세부 품목명을 명시함.

주2: 비교의 '수출'은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이며, '수입'은 회원국의 대북한 수입 금지 품목임. '예외'는 인도주의, 제재위 허가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 조치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제한'은 수출입량이 일정량 정해진 것임.

주3: 사치품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은 목록 작성에서 제외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전략물자관리원. 2008.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4.0을 활용하여 필자 정리

II. 북중 간 농림축산물 무역 현황

-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무역(농림축산물 포함)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본 장에서는 최근 북중 간 농림축산물 무역 현황을 살펴본다.³⁾

- 2016년 이후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수출입의 추세는 상이하였다. 수출의 경우, 2017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수입은 2018년 2분기를 기점으로 급감하였다.⁴⁾ 수출의 경우, 2017년 1분기에는 7,8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7년 2분기에 1억 달러를 상회하고, 2018년 4분기에는 약 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최근(2019년 3분기)에는 2억 2,690만 달러를 수출하여 최근 7년 기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출 품목(후술)이 주로 대두유, 쌀, 밀 등 식량인 것을 감안할 때 2019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양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⁵⁾ 수입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 4분기에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잣을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8,5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잣을 포함한 수입이 부진하였고, 2018년 2분기부터는 대북한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00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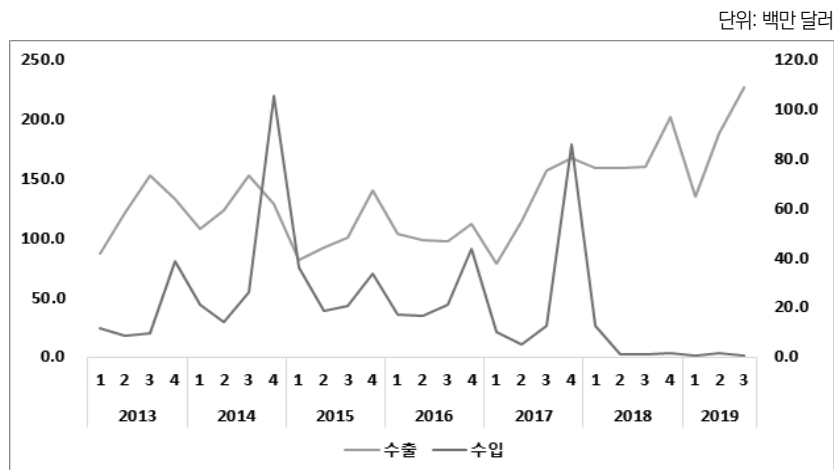


그림2.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2013년 1분기~2019년 3분기)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식용유(대두유), 밀, 쌀 등 식량류와 기호식품(담배), 새털 등 비식용 축산물, 소시지, 버터 등 식용 축산물로 구성된다.

3) 본 장에서 활용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K-stat)는 중국 해관 자료를 바탕으로 북중 간 품목별·성별·월별 무역 통계를 수록·공표함.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와 UN COMTRADE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연간 확정치, 월별 집계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품목 단위 분석 시 액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임.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9.30. KREI 북한농업동향 제21권 제2호를 참고하여 필자 수정

5)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9년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64만 톤으로, 2018년 455만 톤에 비해 약 9만 톤(약 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24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152만 톤, 서류 57만 톤, 보리류 15만 톤, 콩류 및 기타 잡곡 16만 톤 등이었음(농촌진흥청, 2019.12.16. 북한, 올해 식량작물 464만 톤 생산...작년대비 9만 톤 증가). 추가적인 식량 증산에도 불구하고 최저 소요량(570만 톤)에 미치지 못한 상태임.

(농산물) 대두유는 매 분기 평균적으로 3,000만 달러 내외 수준에서 수출하고 있었으며, 2019년 3분기에도 3,133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밀과 쌀은 매 분기 천만 달러 이상 수출(반출)⁶⁾하고 있었으며, 최근 수출(반출)액은 각각 1,677만 달러, 4,86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담배(흡연용 담배와 껌련)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매 분기 1,500만 달러를 상회한다. 이 밖에도 자당, 사과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새털은 주로 의류 또는 방직업(셔틀콕 등)의 원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및 2018년 수출액은 각각 2,779만 달러, 2,749만 달러였으며, 2019년 3분기에는 소폭 감소한 2,10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중국의 대북한 소시지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리고기 역시 증가 추세다.

표5.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수출 품목(2017년 1분기~2019년 3분기)

단위: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1~4	1	2	3	4	1	2	3	
농산물	대두유	111.63	29.51	27.80	35.91	42.76	22.16	30.94	31.33	
	밀	32.62	26.24	13.38	9.66	13.77	15.95	20.03	16.77	
	사과	43.26	26.11	16.34	1.06	6.53	10.68	4.55	0.17	
	쌀	21.36	0.40	1.63	8.74	13.88	1.41	11.82	48.63	
	흡연용담배	22.91	11.36	11.30	10.83	12.41	9.32	10.22	10.59	
	자당	32.38	4.23	7.62	4.50	18.66	7.94	8.23	10.00	
	혼합조제식료품	14.86	2.32	1.51	1.36	6.48	4.86	8.79	9.84	
	껌련	8.28	4.89	4.25	2.55	6.21	5.44	7.44	9.24	
	인삼제제	7.72	4.11	3.96	5.05	4.21	3.46	6.06	5.09	
	에틸알코올	18.85	5.05	3.91	4.14	4.52	2.11	0.10	0.57	
임산물	침대	8.86	1.42	2.73	2.58	3.96	1.38	4.00	4.32	
	섬유판	4.38	1.12	0.85	1.62	1.74	0.95	1.97	2.11	
	합판	6.76	2.10	0.52	0.58	1.02	0.82	1.76	1.05	
	건축용목제품	2.69	0.90	1.08	0.65	0.75	1.01	1.61	1.14	
	장롱	1.86	0.74	0.90	0.88	2.45	0.68	0.80	1.39	
축산물	새털	27.79	0.02	7.80	17.18	2.49	0.80	7.45	12.84	
	소시지	8.82	1.29	2.53	2.69	3.23	2.38	4.42	5.34	
	각종 모(毛)	1.32	0.07	0.22	0.41	0.38	0.05	0.37	2.34	
	오리고기	-	-	-	-	0.03	-	0.21	3.71	
	버터	1.51	0.18	0.11	0.95	0.23	0.23	0.02	0.35	

주: 주요 무역국 순위는 각 국가 2011~2017년도 수출·수입액의 합계 순으로 산정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정리

6) 해관 통계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지원액도 포함하고 있으며,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수출(반출)로 표기함.

-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주요 수입 품목은 채유종실(깨류 추정), 팥, 잣, 원목류 등이다. 2018년 2분기부터 최근까지 유의미한 수입 품목은 감자전분이 유일하다. 채유종실(참깨, 들깨 등)의 2017년도 수입액은 1,068만 달러였으며, 팥과 강낭콩은 각각 584만 달러, 405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 ▶ 잣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2017년도 중국의 대북한 잣 수입액은 7,827만 달러였으며 2018년에는 1,101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19년 수입 실적은 0으로 나타났다.
- ▶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축산물류를 거의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검역 등 비관세적 요인과 북한의 열악한 축산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수입 품목(2017년 1분기~2019년 3분기)

단위: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1~4	1	2	3	4	1	2	3
농산물	채유종실 (깨류 추정)	10,682	706	-	-	-	-	-	-
	팥	5,842	3,847	-	-	-	-	-	-
	강낭콩	4,054	700	-	-	-	-	-	-
	감자전분	657	477	134	135	321	138	488	35
	귤런	439	324	242	160	324	-	-	-
임산물	잣	78,273	4,240	-	-	-	-	-	-
	기타원목	2,809	628	-	-	-	-	-	-
	열대산원목	1,254	589	-	-	-	-	-	-
	기타제재목	372	55	-	-	-	-	-	-
	기타원석	388	4	-	-	-	-	-	-
축산물	기타동물성유지	775	-	-	-	-	-	-	60
	각종 모(毛)	84	-	-	-	-	-	-	-
	꿀	-	-	-	0	-	-	1	-
	소시지	-	-	-	0	-	-	-	-
	식용새집	0	-	-	-	-	-	-	-

주1: 2017~2019년 3분기까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분류별 상위 5개 품목을 선정·정렬하였음.

주2: “-”은 수입액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0”은 수입액이 오백 달러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정리

Ⅲ. 최근 북한의 농정 및 대외 교류협력 동향

-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부터 최근까지 신년사 등을 통하여⁷⁾ 농림축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업 현대화, 식량, 채소 증산,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 방문 당시 중국농업과학원을 참관하고, 베트남 방문 시기에는 수행단이 현지 농기업을 방문하였다. 북한 당국의 농업분야 관심도와 북한의 열악한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된다면 중남과 북한 지방 정부의 곡물, 채소, 축산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성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이 해외 국가와 교류할 때 농업은 중요한 논의 주제(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관심과 북한의 열악한 농업 실정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20일 중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중국농업과학원⁸⁾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하였다.

당시 김정은은 현대농업기술종합전시센터, 잎남새재배기술연구센터, 열매남새재배기술연구센터, 도시농업연구센터, 주민지구농업응용전시센터 등을 참관하였다.



그림3.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 참관 모습

7) 최근(2017~19년) 농림축산업 분야 김정은의 신년사 주요 내용은 참고 표 참조 바람.

8)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은 도시의 건물 및 시설들에서 화초와 남새를 재배하고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 및 보급하는 중점 시범기지로서 여러 가지 잎 남새와 열매 남새들에 대한 무토양 재배기술을 연구보급하고 있음. 또한, 도시 생활에 현대농업을 전면적으로 융합시키고 도시의 살림집, 사무실, 주민지구 등의 공간을 녹색화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음(조선중앙통신 2018.6.21.).

-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당시 김정은의 수행단은 베트남의 하롱베이, 하이퐁을 방문하며 자동차, 휴대전화, 농업, 관광지 등을 시찰하였다. 특히 리수용 외무상과 현송월 단장 등 일행은 베트남의 농기업인 빈에코(VinEco)를 방문하였다. 당시 수행단은 빈 에코 소속 하이테크 농장을 방문하여 파프리카 등을 현지 생산 농산물을 확인 및 시식하였으며, 하이테크 농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4.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의 베트남 농기업(빈에코) 방문 모습

자료: VinEco. 2019.2.4. The most powerful female singer in North Korea enjoys eating clean chili at VinEco Hai Phong

- 천치유파(陈求发) 라오닝성 서기는 2019년 11월 6~9일 북한 노동당 평안북도 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번 방북 기간 중 리수용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과 김영재 대외경제상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⁹⁾ 이때 천 서기는 북중 간 무역과 인적 교류 강화, 농업 분야 협력 추진, 민생 교류 촉진, 관광 협력 등 4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 대외경제상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광과 농업, 보건 분야에서 북·중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V. 종합 및 시사점

- 지금까지 본고는 북한의 무역 동향, 북중 간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북한의 농정 및 대외 교류 협력 동향을 살펴보았다.

9) KOTRA. 2019.12.11. 中라오닝성, 북한과 교류 강화를 발채 정리함.

북한의 무역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이후 2015년까지 지속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를 계기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북중 간 무역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물 교역은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상승하였고, 2017년 기준, 수입 의존도는 90%를 상회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농림축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식용유, 식량(밀가루, 쌀 등), 사과 등이며,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9년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양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입 품목은 잣, 깨, 팔 등이며, 2018년 2분기 이후 유의미한 수입 실적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 정부는 농업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외 교류협력에 농업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 상기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농업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상당량의 식량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농축산업 회복을 위한 스마트 농업의 도입,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포함한 축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충청남도는 농업의 스마트화와 축산에 강점이 있으며,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 시, 충청남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남북 지방정부 간 농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기준, 충남도는 미래형 생명농산업 육성 및 안전한 영농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팜 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시설 면적을 전체 온실(7,821ha)의 18%인 1,474ha까지 확대하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축사를 76개소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2019년 7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충남 스마트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의 100여 농가(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 소득작목 중심)가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에 충남 당진이 포함되었다.

- 현재(2019년 12월 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2000년대 중반 진행되었던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이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평가하고, 북한과의 농림축산업 교류 활성화에 대비할 것이 요구된다.

향후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과 북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김정은 신년사의 농림축산업 관련 정책(2017-2019)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난해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 ·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성과 ·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 생산체계 확립 · 다수확품종의 육종 성공 · 수많은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 도수준 돌파 ·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북 지역의 피해복구작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화국 고립 책동 속에서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성과 ·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큰 진전 · 식료공업의 우리 기술, 설비로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및 인민소비품의 다양화·다중화 담보 마련 · 신형 트랙터, 화물자동차 생산량 달성에 따른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기초 마련 ·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다수확 농장이 증가하고 보기 드문 과일풍작 · 대규모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과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의 자주 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의 커다란 변화와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 · 우리의 주동적, 적극적 노력에 의해 한반도 평화 기류 형성,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공화국 창건 일흔둘 경축 ·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전력, 금속, 화학공업, 농업 등) · 농업부문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 이룩한 단위와 농장원 배출 · 공업부문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을 생산,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추동
당해연도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총력 집중 ·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 생활 향상의 큰 진전 필요 ·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다수확운동을 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의 활성화 필요 ·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의 개선 및 향상 · 농업과 수산전선에서의 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강화, 자력 강생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양양, 인민경제 전반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작전 집행 · 관리방법의 혁신: 국가기관은 계획화와 가격 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간이 기업체 생산 활성화와 확대 재생산에 작용되도록 함.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구·사업체계 정비 · 전력 생산의 획기적 증대, 금속·화학 공업의 주체화 실현 ·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
-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종자와 과학적인 영농 방법 도입 · 두벌 농사 면적 확대 · 능률적인 농기계의 창안·도입 · 과일과 남새, 버섯생산량 증대 · 농근맹 등 조직의 속도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종자, 다수확 농법, 능률적 농기계 생산 ·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 목표 달성 · 온실 남새와 버섯 생산량 증대 ·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독려 · 린비료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 ·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등 기계 공장의 현대화 및 우리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부문은 영농 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하여 농사 필요 영농 물자 보장 ·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 · 도, 시, 군당위원회는 농사와 교육 사업, 지방 공업 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에 현대적 양묘장 설립 및 산림복구전투의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구전투 성과의 확대 및 이미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구전투 2 단계 과업 적극 추진하여 원림 녹화, 도시 경영, 도로 관리사업 개선하고 환경 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함.
-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영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생산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공장 등 축산기지의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의 공동 축산과 개인 부업 축산 장려

자료: 로동신문 2017.1.1.; 2018.1.1.; 2019.1.1. 김정은의 신년사를 활용하여 필자 정리

참고문헌

- 김영훈·전형진·임채환. 2018.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전략물자관리원. 2008.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4.0
 농촌진흥청. 2019.12.16. 북한, 올해 식량작물 464만 톤 생산…작년대비 9만 톤 증가
 로동신문 2017.1.1. ; 2018.1.1. ; 2019.1.1.
 축산경제신문. 2019.7.5.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 선정
 충청남도청. 2019.1.1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통계청. 북한정보포털 <<https://kosis.kr/bukhan/>>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main.scree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9.30. KREI 북한농업동향 제21권 제2호
 조선중앙통신. 2018.6.21.
 CJ헬로 충남방송. 2019.7.31. [오늘의 이슈] 충남 스마트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KOTRA. 2019.12.11. 中라오닝성, 북한과 교류 강화를 발체 정리함.
 VinEco. 2019.2.4. The most powerful female singer in North Korea enjoys eating clean
 chili at VinEco Hai Phong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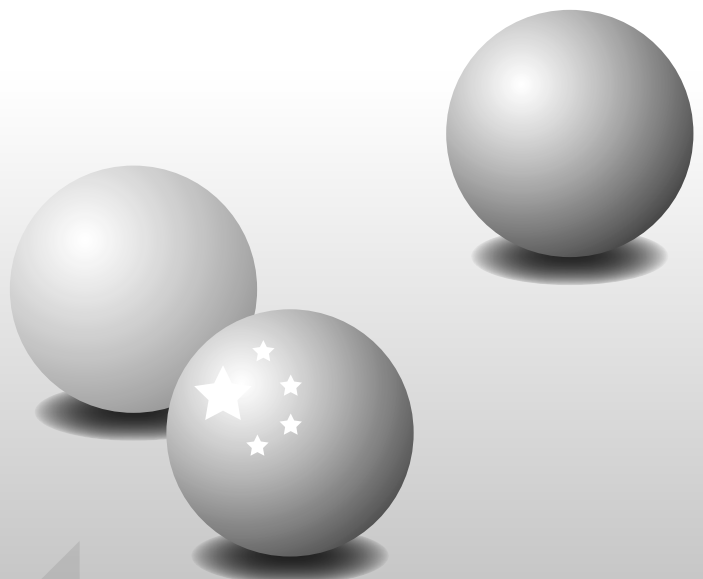
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

중국 지방정부 국제포럼 동향

- 지방정부 국제포럼 동향
- 충남도와 교류 중인 지방정부의 주요 국제포럼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포럼’이라 하면 청중들이 참가하는 자리에서 특정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자료를 제시하거나, 집단토의 방식을 통해 제시한 주제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에 청중들도 참여하는 일종의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럼’을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도 지난 2015년을 전후하여 ‘환황해포럼’, ‘3농 포럼’,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등 다양한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 해외 중점 교류국가인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럼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지방정부 국제포럼 동향

- 2013년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전략구상을 전개하면서 중국 각계에서 ‘포럼’ 개최에 열을 올리 기 시작하였다. 정부차원에서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내걸고 국가 외교전략을 확장하는 추세이고, 지방정부 중에서도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 시 지방정부들도 ‘일대일로’를 주제로 연선국가 및 해외교류 지역과 함께 포럼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밖에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우호교류지역과 함께 추진하는 ‘우호교류포럼’도 개최되고 있다.
- 지방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포럼은 포럼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1) 글로벌 협력 기제를 활용한 포럼 2) 지방 정부 주관 국가급 포럼 3) 우호교류관계 승화의 장 4) 지역특색 관련 국제협력 포럼 등으로 분류된다.
- 글로벌 협력기제를 활용한 포럼들은 주로 정부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다. 이를테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라든지, 동북아, 동아시아 등 정부의 글로벌전략과 일맥상통한다.
 - 그중 산둥성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하나인 ‘해양 실크로드’를 활용해 ‘해양협력 플랫폼 및 칭다오포럼’을 제기한 데 이어, 중국 서부의 칭하이성과 쓰촨성도 잇달아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 그리고 국가급 포럼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포럼은 개최지가 지방이거나, 지방포럼이 승격한 형태이다. 그중 '중국 동북아 박람회'는 2005년부터 개최해온 것으로 많은 포럼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개최되는 포럼이다.
- 이밖에도 지방정부에서는 국제포럼을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우호도시 협력 포럼과 지역의 현안문제와 연결 지은 전문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 우호교류도시 포럼은 중앙 및 각 지방정부 산하기관인 대외우호교류협회의 국제교류의 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지역 특색 또는 지역 현안 관련 포럼 중 대표적인 포럼으로 구이저우성의 '생태문명국제 포럼', 광둥성의 '국제기술 혁신 대회', 장쑤성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포럼'을 들 수 있다.

<표 1> 중국 지방정부 주관 주요 국제포럼

분류	포럼명	주관기관
글로벌 협력 기제 활용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칭다오포럼	산둥성 인민정부-칭다오시 인민정부 - 국가해양국
	사두국제포럼 및 실크로드 연선 국제우호도시 정상회의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 칭하이성 인민정부
	일대일로 쓰촨 국제우호도시 협력 및 발전 포럼	쓰촨성 인민정부-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지방 주관 국가급 포럼	한중일 우호도시 교류대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일본 지치체 국제화 협회 - 한국 전국 시도지사 협회
	중국-동북아 박람회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무역촉진회 - 지린성 인민정부
	동북아 지역 협력 발전 국제포럼	헤이룽장성 인민정부-중국사회과학원
국제 우호교류 승화의 장	푸젠성 국제우호도시 대회	푸젠성 인민정부 - 중국대외우호협회
	산둥성 국제우호도시 협력발전 대회	산둥성 인민정부 - 중국대외우호협회
	'광저우 발전 국제우호도시 프로젝트 40주년 기념' 대회	광저우시 인민정부
지역 특색 (또는 현안) 관련 포럼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 대회	광저우시 인민정부-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 연합(UCLG) - 세계 대도시 협회
	구이양 생태문명국제포럼	구이저우성정부 - 중국정치협상회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국가과학기술부-국가환경부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포럼	중국공정원 주관 / 장쑤성 난징시정부, 중국공상원환경 주최

2

충남도와 교류 중인 지방정부의 주요 국제포럼

1) 산둥성 -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 칭다오포럼

-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은 2016년 1월에 산둥성 칭다오시에 설립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아세아국가간 해양분야 협력이 심화되면서 협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매커니즘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1월에 걸쳐 ‘동아시아 해양플랫폼’ 건설에 대한 논의와 세부방안을 도출하였다.
 - 제16회 ‘아세안국가와 한, 중일 지도자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구축을 제안하였고, 그 뒤 제17회, 제18회를 거치면서 총 3,000만 위안을 출자하여 산둥성 칭다오시에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5년 11월, 칭다오시 서해안신구에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그림 1]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사무국 전경 및 포럼현장 사진

출처 :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EAMCP) 홈페이지(<http://www.eamcp.org>)

- 첫째 포럼은 2016년에 칭다오시 황다오구에서 개최되어 ‘황다오포럼’으로 불리며, 2017년에도 동일하게 황다오구에서 제2차 ‘황다오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1차 포럼은 ‘서로 연결과 이익 공유’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은 ‘동아시아 연결, 실크로드 공동번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1차 포럼에서는 기초적으로 동아시아 해양 및 비즈니스 협력 기제를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항구 연맹을 설립하였다.
- 2018년 9월에는 새롭게 조성된 칭다오시 서해안신구에서 제3차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를 ‘칭다오포럼(青岛论坛)’으로 명명하였다.
 - 제3차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해양산업 발전 및 투자대회, 동아시아 해양 정상회담, 동아시아 항구연맹 대회, 동아시아 예술 발전 포럼, 해양경제 협력 및 인재 개발 포럼 등 세션으로 개최하였다.
- 2019년 9월에도 칭다오시 서해안신구에서 제4차 ‘칭다오포럼’이 ‘교류를 통한 개방과 순통’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4차 포럼에서는 자유무역시범구 건설과 동아시아 해양협력 포럼, 동아시아 항구연맹 대회, 국제 해양어업 발전 포럼, 동아시아 해양 환경 협력 포럼, 동아시아 해양 문화 및 관광 발전 포럼 등 세션으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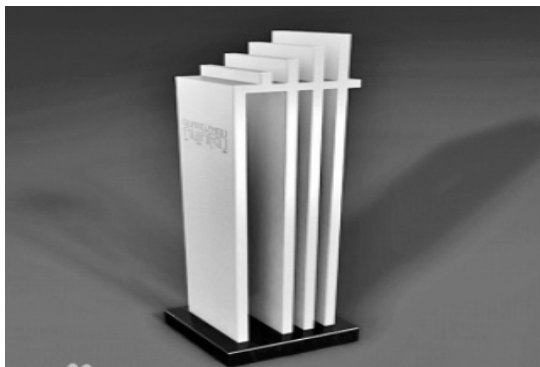
<표 2>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국제포럼 개최 경과

구분	개최 시기	주제	참석자 규모
제1차	2016.7	서로 연결 및 이익 공유	34개 국가 및 지역 400여 명
제2차	2017.9	동아시아 연결, 실크로드의 공동 번영	38개 국가 및 지역 500여 명
제3차	2018.9	해양전략의 공동 수립과 공유	38개 국가 및 지역 580여 명
제4차	2019.9	교류를 통한 개방 순통	30개 국가 및 지 400여 명

출처 :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EAMCP) 홈페이지 (<http://www.eamcp.org>)

2) 광둥성 -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대회

-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대회’는 글로벌 대도시들이 서로 혁신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선진적인 거버넌스 경험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대회는 광저우시 인민정부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세계 대도시 협회(World Association of Major Metropolises)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이 대회에는 지방정부가 추진했던 혁신정책과 성공사례 또는 도시 거버넌스 추진 경험을 공유 및 확산하려는 많은 국가 지방정부가 참여하였다.
- 2012년 11월에 제1회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 대회를 개최한 이후, 2년마다 개최하여 작년 12월에 제4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 대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주관하고 상을 시상하는 국제행사이다. 각국의 도시와 지방정부가 도시혁신 거버넌스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 상을 시상함으로써 서로 우수한 정책을 배우는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 대회에서는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시상과 광저우 국제 혁신의 날, 세계 도시 시장 포럼 등 행사를 마련해 광저우의 ‘혁신도시’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림 2]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상 및 제1회 시상식

출처: 바이두백과

- 제1차 포럼에서는 ‘도시 혁신의 성취와 미래’를 주제로, 제2차 포럼에서는 ‘우호도시와 도시혁신’을 주제로, 3차 포럼에서는 ‘광저우에서 지혜를 모으고, 세계로 전파’로, 제4차에서는 ‘글로벌 개방과 포용 혁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 대회에서는 매년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인 ‘광저우상’을 시상하였으며, 제4차 대회에는 총 27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투표를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5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제3차 대회에서는 서울시 송파구(태양열 공유발전소)가 ‘광저우상’을 받은 적이 있다.

<표 3>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대회 개최 경과

구분	일시	주제	공동 개최 행사
제1차	2012.11	'도시 혁신의 성취와 미래'	제1차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제2차	2014.11	'우호도시와 도시 혁신'	제4차 중국 국제 우호도시 대회제 2차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제3차	2016.12	'광저우에서 지혜를 모으고, 세계로 전파'	광저우 국제 혁신의 날제 3차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제4차	2018.12	'글로벌 개방과 포용 혁신'	제1차 세계 도시 시장 포럼 제4차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출처 : 바이두 백과, 광저우인민정부

3) 장쑤성 -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포럼

-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포럼’은 매년 하반기에 장쑤성 난징시 에서 개최하며, 지역 중점산업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포럼이다.
 - 장쑤성 난징시 도심인 잔예구에 장신저우(江心洲)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은 창장하류에 오랜 세월을 거쳐 모래가 침적되어 생긴 섬이다. 2009년에 난징시정부와 싱가포르가 장신저우 섬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강속 명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 장신저우 섬에 ‘5개 중심’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각각 水화학기술연구개발중심, 水과학기술재산권교역중심, 水과학성과전시중심, 水과학기술국제교류중심 및 水과학연구인재양성중심이다.
-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포럼’은 2016년에 첫 회를 개최하여 올해에 제4회를 맞았다.
 - 이 포럼은 3회까지는 난징시 진예구인민정부와 싱가포르·난징 생태과학기술섬 관리위원회가 주관으로 개최하다가 올해는 중국공정원의 주관, 난징시 잔예구정부, 중국공정원, 다장환경유한회사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는 지방 주관행사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장 또는 확대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3] 물환경 거버넌스 국제포럼 현장 사진(2019/2018)

출처: 중국 인민망 (js.people.com.cn)

- 이 포럼은 섬의 주력산업인 물산업을 학술 및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지역에 우수한 기술과 인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4회차 포럼을 개최해오면서 포럼의 형식, 내용, 규모, 성과 측면에서 모두 큰 발전을 가져왔다.
 - 제1회는 ‘제10차 싱가포르·쑤저우 이사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제1회 포럼은 ‘녹색 장신저우, 생태물 순환’을 주제로 녹색발전의 이념 하에 신형 경제발전방식을 모색하고, 한정된 자연생태자원 보호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방안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 포럼은 회를 거듭할 때마다 발전해왔는데, 제2회부터는 메인 포럼 외에 해외 기술우위 국가간의 논의의 장도 마련되었다. 제3회에서는 IWA(국제수협회)와 지역기업들의 협약을 통해 난징수처리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 특히, 올해에 개최한 제4회에서는 ‘양자강 수상’ 수처리기술혁신경연 행사와 ‘지혜로운 물 관리기술 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4>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포럼’개최 경과

구분	일시	주제 및 형식	비고
제1차	2016. 11. 29	녹색 장신저우, 생태물 순환	‘제10차 싱가포르·쑤저우 이사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
제2차	2017. 11. 27	녹색 장신저우, 생태물 순환	중국과 미국 수기술포럼, 중국과 캐나다 수기술포럼 개최 (IWA 참석)
제3차	2018. 10. 22	2018국제생태환경기술대회 -국제포럼	- IWA 제2운영중심과 난징수처리그룹 협약으로 난징수처리혁신연구원 설립 - ‘양자강 수상’ 행사와 ‘지혜로운 물 관리기술 포럼’ 행사 증설
제4차	2019. 10. 16	탄소 제로 장신저우, 생태물 순환	중국공정원 주관으로 변경

출처 : 난징시진예구정부 홈페이지, 쑤저우신문

3

결론 및 시사점

- 중앙정부는 국가전략 전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지역에 따라서 정부전략의 연속선상에서, 또는 지역특색이나 현안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면 1) 글로벌 협력 기제를 활용한 포럼 2) 지방 정부 주관 국가급 포럼 3) 우호교류관계 승화의 장 4) 지역특색 관련 국제협력 포럼 등으로 분류된다.
 - 정부는 ‘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 내걸고 국가 외교전략 확장 차원의 포럼을 개최하는 추세이다.
 - 일부 지방정부도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과 매칭하면서 지방정부간의 교류관계를 활용한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
 - 또 다른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포럼은 지역의 특색산업이나, 현안문제와 관련 된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
 - 앞에서 사례로 소개한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 대회’와 난징시 ‘국제 물환경 거버넌스 발전 포럼’의 경우 모두 ‘상’을 시상하는 행사를 구성하고 있다. 시상을 통해 주관기관이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외부로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례로 살펴본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은 모두 충남도의 교류지역이다. 교류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포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도의 포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앞에서 예로 든 산둥성의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은 해양에 특화된 지방정부 주관 포럼이며 주관기관인 산둥성은 충남도와 1995년에 우호교류관계를 체결하였다.
 - 두 번째 사례인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 대회’의 경우는 광둥성의 4차 산업 기반을 적절히 활용한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광둥성도 충남도와 2016년에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였다.
 - 세 번째 사례인 장쑤성 난징시 ‘국제 물환경 발전포럼’의 경우 창장하류에 위치한 난징시의 우위산업 또는 현안문제를 놓고 포럼을 개최하는 형식이다. 장쑤성도 충남도와 2005년에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 지방정부가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정립하거나, 해외 우수한 기술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가늠할 마땅한 척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제한된 예산으로 국제포럼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을 통해 포럼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EAMCP) 홈페이지, <http://www.eamcp.org>
 新加坡·南京生態科技島, <http://www.sneco.com/>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2018東亞海洋合作平臺青島論壇舉行
<https://baijiahao.baidu.com/s?id=1610935267919375604&wfr=spider&for=pc>
 2019東亞海洋合作平臺青島論壇開幕!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4355480
 第三屆國際水環境治理高峰論壇在南京江心洲召開
http://js.ifeng.com/a/20181022/6965672_0.shtml
 國際水環境治理高峰論壇在南京生態科技島召開
http://www.sohu.com/a/270781399_123877
 바이두백과 : 廣州國際城市創新獎
<https://baike.baidu.com/item/%E5%B9%BF%E5%B7%9E%E5%9B%BD%E9%99%85%E5%9F%8E%E5%B8%82%E5%88%9B%E6%96%B0%E5%A5%96/5037825?fr=aladdin>
 “創新之城”第三屆廣州獎頒獎典禮舉行
<http://www.gz.gov.cn/gzgov/dsjcxj/201612/1035395572b54236b120cc47fca3cb3e.shtml>
 “廣州獎”頒獎結果揭曉, 同期發布《全球市長論壇廣州宣言》,
http://gz.southcn.com/content/2018-12/08/content_184389944.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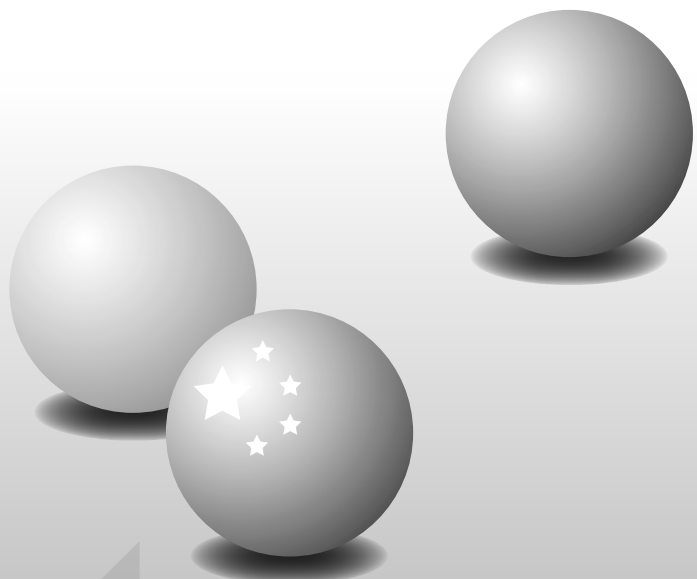


11.

당나라 영랑공주가 창건한 당진 영랑사(影浪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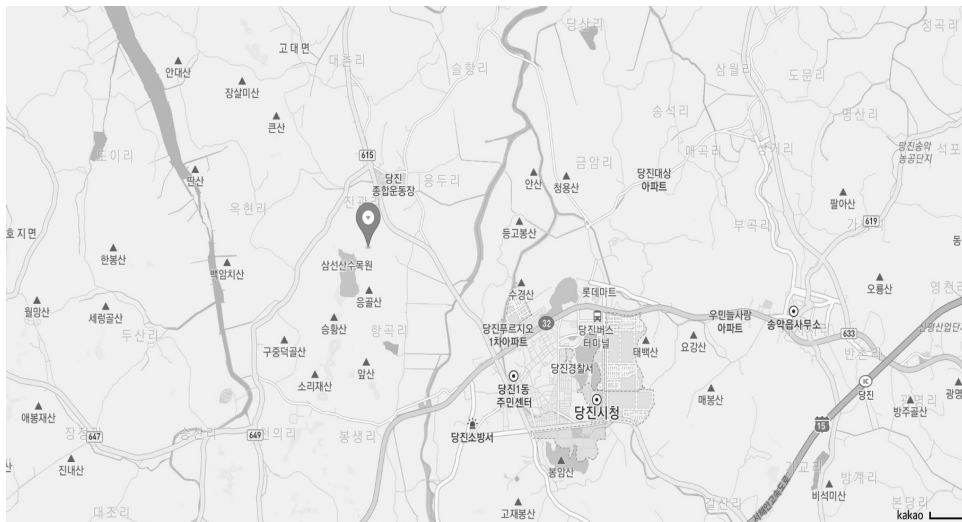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당나라, 당진(唐津), 그리고 영랑사

당진(唐津)은 지명 그대로 당나라와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¹⁾ 하지만 외국에서 차이나타운이 당인가(唐人街)라고 불리듯 당(唐)이라는 이름이 당나라에 국한된 뜻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진은 당나라 시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 시대와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당진은 당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진에 있는 역사 유적이 증명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당나라 영랑공주가 당진에 와서 창건했다는 영랑사(影浪寺)이다.



[그림1] 당진시 영랑사의 위치(출처: 다음지도)

영랑사 창건의 세 가지 설화

영랑사는 당진시내에서 멀지 않는 고대면 진관리의 야트막한 영파산(삼선산)에 자리 잡고 있다. 영랑사의 창건에는 세 가지 설화가 있다. 첫 번째는 당나라 당태종의 딸인 영랑공주와 관련한 설화이다. 당나라 영랑공주가 구법 입당한 의상스님을 만나 신라 원효스님의 오도 이야기를 듣고 감명하여 해동에 불법이 융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옛 백제 땅에 주둔해 있는 당나라 수군의 해상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당군의 주둔 항구 근처에 있는 원효스님 오도처에 당승인 아도 화상(阿度和尙)에게 부탁하여 서기 644년(신라 문무왕 4년)에 이 사찰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설화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서기 690년경 의상스님이 원효스님의 오

1) 일본에도 충남 당진시와 똑같은 이름이 사가현(佐賀縣)에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당나라와 교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도 인연이 있는 터에 원효스님 열반 후 원효스님을 기리기 위해 창건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려 개국 공신 복지겸 장군의 딸인 복영랑이 만년에 중병에 걸린 아버지의 쾌유를 발원하여 원효스님의 오도 전설이 내려오는 공훈으로 하사받은 이 땅에 서기 940년경(고려 태조)에 영랑사를 지었다는 것이다.²⁾



[그림2] 당진 영랑사의 모습

자료: 영랑사 템플스테이 블로그

원효스님의 깨달음이 서린 영랑사

세 설화의 공통점은 모두 원효스님의 오도(悟道)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원효스님의 오도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서기 661년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두 번째로 해로를 이용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당 수군의 주둔지이며 당의 군선과 무역선의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옛 백제 땅인 당진 지역으로 오던 도중에 날이 저물어 토굴과 무덤에서 각기 하루 밤을 보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다. 이야기에 따르면, 원효스님은 킁킁한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 우연히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 달콤했던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고여 있었던 물이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원효스님은 이때 문득 사람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하는데 암튼 이를 계기로 원효스님은 마음과 만법의 이치를 깨달아 유학을 접고 신

2) 영랑사 홈페이지 참조. 이외에도 옛날에는 영랑사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영랑사가 바닷물에 비쳤다고 해서 '영랑'(影浪)사라고 했다는 설화가 있다.

라로 돌아가서 이름을 떨치고, 의상스님은 당으로 들어가 당 화엄학(華嚴學)의 대가인 법장·지엄스님과 교류한 후 귀국 화엄십찰(華嚴十刹)을 창건했다.

아무튼 영랑사 창건과 관련한 세 가지 설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설화는 당나라 영랑공주와 관련한 설화이다. 불교국가인 당나라. 의상스님으로부터 원효스님의 오도 이야기를 들은 영랑공주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옛 백제 땅에서 불교가 융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도화상을 통해 원효스님의 깨달음 터에 작은 사찰을 지은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삼국을 통일하자 당나라 사람들이 당진에도 많이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 때 영랑공주도 이곳에 와서 의상스님으로부터 들은 원효스님의 오도처에 그와 함께 온 아도화상에게 그의 이름을 딴 영랑사를 짓게 한 것이다.

당진사람들의 정감이 묻어 있는 영랑사

영랑이란 절 이름은 시주자의 이름과 금강경 사구게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의 뜻인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제행무상의 이치를 담고 있다. 그 후 원효스님의 일심화회 사상(모든 교리를 체인 일심으로 통섭하고 방편인 용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교리와 수행법은 서로 화합하여 어울려 어긋나지 않고 공존한다는 것)과 무애보살행(사회에 이런 사상을 직접 실현하여 평등 속에 차별의 화합, 공존을 구현)을 지극히 공경한 대각국사 의천이 서기 1091년(고려 선종8년)에 중창했다고 한다. 그 후 영랑사는 여러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도 법등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다가 조선 숙종4년(1678년) 호암대사가 대웅전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확실한 역사적 고증은 어렵지만 원효스님의 오도 인연이 서린 영랑사는 1300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리이타) 더불어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깨침을 지향하는(자각각타) 도량으로 역사적 부침을 이겨내며 존속되어 온 당진에서 가장 오래된 당진 사람들의 정감이 묻어 있는 사찰이다.

세종 때 기록된 당진현 사찰 중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

영랑사에는 충남도 문화재 제15호인 대웅전과 문화재 자료 제221호인 동종이 있다. 대웅전의 규모는 정면 3칸 9.35m, 측면 3칸 6.20m로서 재료는 목조이며 조선 중기에 제작되었다. 대웅전은 주심포와 다포식이 혼용된 절충형 맞배지붕 양식인데 이러한 양식은 조선 초기와 중기

3) 영랑사 홈페이지 참조. 이하 영랑사 관련 내용은 동일.

에 많은 양식이라고 한다. 대웅전 안에는 목조 석가모니불과 동자불상, 그리고 후불탱화 등이 봉안되어 있다. 영랑사는 또한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청탑의 기단부와 복발 일부가 발견되어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고 세종 때 제작된 팔도지리지를 근간으로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기록된 당진현의 사찰 중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이다.

대웅전 안에 있는 동종은 높이 77.1cm, 천판 직경 35cm, 종복(하대) 구경 52cm, 두께 5~15mm의 크기로 1759년(영조35년)에 제작된 소종이다. 동종의 표면에는 '건륭24년 기묘춘 당진 영랑사금종'이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고 화주승과 시주자와 공인들의 이름이 하대 쪽에 빙 둘러 기록되어 있다. 이 종은 종각에 종성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법당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일반적인 범음구인소종이라고 한다. 주조 연대가 확실하여 영랑사의 연혁을 열려주는 매우 소중한 사료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3] 영랑사의 대웅전(좌)와 동종(우)

자료: 영랑사 홈페이지(www.younglangsa.com)

깨달음으로 잇는 동아시아 순례길로 나아가길

영랑사는 작은 사찰이지만 독특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찰은 원효스님이 불법의 가르침을 얻고자 당나라로 유학하기 위해 이곳 당진으로 와서 동굴과 무덤에서 잠을 자다 문득 깨달음을 얻은 장소, 즉 원효스님의 오도처(悟道處)이기도 하고 당나라 당태종의 딸인 영랑공주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이곳에 와서 아도화상에게 주문해 창건한 절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영랑사는 깨달음을 매개로 한 한·중 역사 교류의 접합점이기도 하다.

영랑사는 현재 사찰 내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옛날 원효스님이 이곳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일반 대중들이 잠시나마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제행무상,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영랑사 템플스테이에는 다양한 종류(휴식, 장기 휴식, 명상, 참

선, 전통문화 체험, 차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가 자가 치유를 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이루는 길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대해 성찰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⁴⁾

당진은 불교의 ‘깨달음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솔피성지가 바로 당진에 있다.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곳을 직접 다녀가 유명해지기도 한 곳이다. 김대건 신부는 중국 마카오와 상하이 등지에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와 국내에서 비밀리에 교리를 전파하다 1846년에 결국 체포되어 안성에서 순교했다.

시간은 달리하지만 영랑사와 솔피성지는 만인의 평등과 사랑을 구현하고자 하는 위인과 관련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곳 모두 중국과 관련한다는 점이다. 최근 당진에도 내포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순례길이 조성되고 있다. 그 가운데 원효스님과 관련해서는 내포문화숲길 중 원효깨달음길(내포1~9코스)이 조성되어 있다. 원효스님과 김대건 신부, 영랑사와 솔피성지 등을 잇는 순례길이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순례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그림4] 원효깨달음길과 솔피성지의 김대건 신부

자료: <https://ynj639.blog.me/221318281278>(좌), 당진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우)

참고 문헌 및 자료

네이버(두산백과, 지식백과): 김대건, 솔피성지, 영랑사, 영랑공주, 아도화상
 당진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dangjin.go.kr/tour.do>)
 영랑사 홈페이지(www.younglangsa.com)
 영랑사 템플스테이 블로그(<http://blog.daum.net/younglangsa>)
 지리지단 여행스케치 블로그(<https://ynj639.blog.me/221318281278>)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https://www.templestay.com/temple_info.asp?t_id=younglangsa)
 영랑사(https://www.templestay.com/temple_info.asp?t_id=younglangsa)

4) 템플스테이_영랑사(https://www.templestay.com/temple_info.asp?t_id=younglang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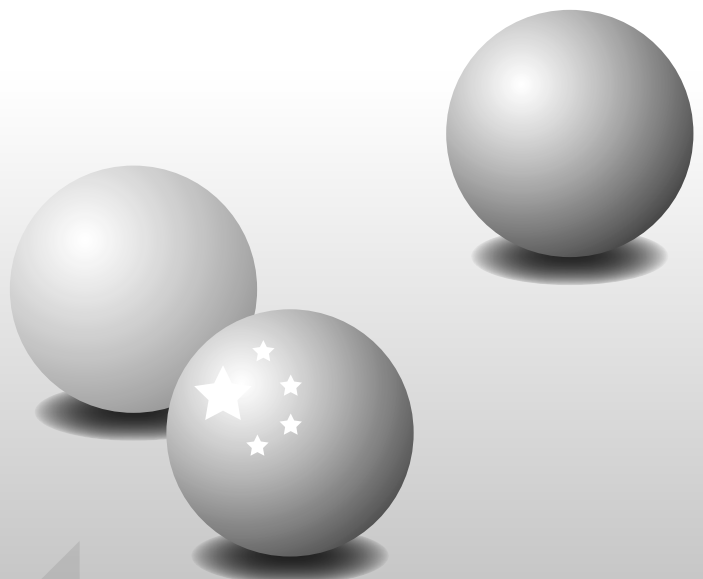
2019년 하반기 충남 도·시군의 대중국 교류 동향

하반기 충남의 대중국 교류 동향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동향
- 충남 시군의 대중국 교류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1

충청남도의 하반기 대중국 교류동향

❶ 충청남도 '2019 국제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



일시 11월 25일

장소 부산시

주관 행정안전부

내용 충청남도가 제6회 중앙·지방 국제교류정책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수상

자료: 충남넷

❷ 콘텐츠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하얼빈시와 교류 시작



일시 11월 13일

장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내용 센터와 아산시 및 선문대 관계자의 참석하에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유치 과정을 설명, 중국 정부로부터 혁신 실험도시로 지정된 하얼빈시는 지역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 및 지역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임

자료: 충남넷

❶ 충남도내 청소년 대상 윈난성 문화 교류 추진



일시 11월 4일 ~ 8일

장소 중국 윈난성

내용 충남도 주최,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주관으로 '양국 청소년간의 이해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도내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윈난지역 청소년간 교류, 전통체험, 박물관 관람 등 진행

자료: 충남넷

❷ 충남-랴오닝 무역상담회에서 예산사과증 수출계약 성공



일시 8월 21일

장소 중국 랴오닝성

내용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된 충청남도과 랴오닝성 간 무역상담회에서 충남 예산의 사과 생즙과 중국 칭다오형지허무역유한공사와 무역협력협정 및 수출 계약 체결

자료: 충남넷

❸ 충남도,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에서 정책 공유 제안



일시 8월 21일

장소 중국 지린성

내용 외자유치 및 지방외교 확대를 목적으로 중국 동북3성 순방 중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에 참석하여 충남의 선도적인 정책 소개, 정책 공유의 장 소개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책 공유 제안

자료: 충남넷

2

충남 시군의 하반기 대중국 교류동향

① 예산군 중국 베이징시 초중학교와 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 추진



일시 11월 28일

장소 예산군청, 예산문화예회관 등

내용 충청남도도와 (주)한중문화관광원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산군에 베이징시 교장단이 방문함. 이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와 외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기대 및 지역인재의 글로벌 가치관 함양 기대

자료: 충남넷

① 천안시 의료관광 심포지엄 개최



일시 11월 27일

장소 천안시

내용 천안시와 천안시의료관광협의회 및 단국대 병원의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자료: 충남넷

① 청양군, 중국 쑤이시와 '농업교류' 논의



일시 11월 2일

장소 청양군

내용 중국 최대 고추생산지인 구이저우성 쑤이시와 양 지역의 공통농산물인 고추생산 등 농업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쑤이시 대표단은 청양군 정산면 소재 천연화장품 제조 기업 한스텍의 연구개발과정과 생산품에 큰 관심을 보임

출처: 충청뉴스

❶ 천안시, 산둥성 의료시장 개척에 나섬



일시 10월 28일 ~ 30

장소 산둥성 지난시

내용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 코트 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관 행사로 총 100여개 병원과 바이어 참여. 천안 대표단은 의료관광 홍보부스 운영, 참여기관 홍보마케팅, 치료과정 시뮬레이션 등 행사를 통해 산둥지역 의료시장 개척에 나섬

자료: 충남넷

❷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허베이성에서 벤치마킹



일시 10월 28일

장소 서산시

내용 허베이성 자연자원청 방문단은 서산시를 방문해 드론관제시스템과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대해 학습

자료: 충남넷

❸ 공주시 징더전시와 우호협력 추진



일시 10월 16일

장소 중국 징더전시

내용 공주시 시장 일행이 “도자공예문화교류”를 위해 징더전시를 방문하고 징더전시와 우호협력 체결, 징더전시 도계천과 계룡산 도예촌의 도자문화교류 협약 체결

자료: 충남넷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9.12)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22호	2018년 11·12월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제23호	2019년 1·2월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제24호	2019년 3·4월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
제25호	2019년 5·6월	중국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시사점
제26호	2019년 9·10월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제27호	2019년 11·12월	북중 농림축산물 무역 현황과 충남의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